

# 선 리처드 “혼혈 배우의 한계, 뛰어넘고 싶었다”

### 개그맨 겸 배우 서동균 10살 연하 신부와 백년가약

라이프타임 ‘드라마월드’ 배우이자 제작자  
서로 다른 문화 녹인 작품으로 세계 겨냥  
“하지원은 천생 배우이면서 배려 넘쳐”



선 리처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외부인일 수밖에 없던 한 배우가 두 문화를 융화시킨 작품으로 세계를 겨냥한다.

라이프타임 오리지널 드라마 ‘드라마월드’의 배우이자 제작자인 선 리처드(37)의 이야기다.

“드라마월드”는 한국 드라마에 빠진 클레어(리브 휴슨 분)가 갑자기 드라마 안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한국인 어머니와 영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나고 자란 선 리처드는 최근 종로구 중학동의 한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작품을 만든 계기를 설명했다.

“할리우드에서는 저를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말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혼혈 배우로서 말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됐다는 게 느껴졌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웃음)”

그렇게 탄생한 ‘드라마월드’는 2016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를 재치 있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은 이 작품은 2021년 라이프타임 오리지널 드라마로 재탄생했다.

“시즌 1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는데 ‘너무 (영상) 길이가 짧다’는 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는 더 길게, 캐스팅은 더 화려하게 시즌 2를 만들었어요.”

선 리처드는 하지원, 중국계 캐나다인 헨리, 호주 출신 배우 리브 휴슨 등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배우들이 출연한 ‘드라마월드’의 현장 분위기는 남달랐다고 말했다.

“모국어로는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었죠. 국적이나 언어, 인종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좋기도 했고요.”

특히 두 번째 시즌의 주연으로 합류한 배우 하지원에 대해서는 “평생 연기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천생 배우이면서도 잘 웃고 배려도 넘쳐 재밌게 촬영했다”고 칭찬했다.

지난해 3~5월경 국내에서 촬영된 ‘드라마월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다. 가장 큰 위기는 출연자 중 한 명인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대니얼 대 김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때다. 다행히 대니얼 대 김은 한국에 오기 전 완치 판정을 받고 무사히 촬영을 마쳤지만, 선 리처드는 “촬영을 끝낸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드라마 월드’

2011년 드라마 ‘제왕’으로 국내에서 데뷔한 뒤 배우에서 스토리텔러, 그리고 제작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는 ‘드라마월드’가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밝혔다.

“제가 이 분야에서 할 일이 있는지 고민이 많았어요.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 길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드라마월드’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작품을 통해 저랑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힘을 얻었어요. 게다가 영화 ‘기생충’, ‘미나리’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할리우드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문화를 함께 녹여낸 작품을 계속해서 구상 중이라는 선 리처드는 요즘 “즐거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로서도 제작자로서도 ‘드라마월드’처럼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있는 작품, 저와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웃음)”



개그맨 김수용, 박준형, 서동균(왼쪽부터)

원로 코미디언 고(故) 서영춘의 아들이자 개그맨 겸 배우 서동균(50)이 오늘 백년가약을 맺었다.

16일 개그맨 박성호에 따르면, 서동균은 전날 10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서동균과 KBS 개그맨 동기인 박준형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식장 사진을 올리며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서동균은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 개인 사업가와 교제 중임을 밝히며 5월 결혼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1997년 KBS 공채 개그맨 13기로 데뷔한 서동균은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로보깡’이라는 코너로 인기를 얻기도 했다.

2004년에는 뮤지컬로 전향해 ‘아가씨와 건달들’, ‘사랑은 비를 타고’,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현재는 수원에서 미역 전문 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 인순이·브브걸 등 62명이 22년만에 다시 부르는 ‘하나 되어’

## 아기상어 시리즈 ‘베이비샤크 빅 쇼’ 전 세계 확대 방영...한국엔 하반기 공개

### IMF 이후 국민 응원 위해 탄생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극복 메시지를 담아 인기 가수들이 함께 불렀던 ‘하나 되어’를 2021년의 가수들이 다시 부른다.

17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따르면 ‘하나 되어’를 다시 불러 새롭게 제작한 앨범 ‘2021 지금 다시 하나 되어’가 이날 정오 음원 사이트에 정식으로 공개된다.

연제협 측은 “원곡 ‘하나 되어’는 IMF 사태 이후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탄생했던 노래”라며 “2021 지금 다시 하나 되어 역시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 놓인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전했다.

2021년 버전은 인순이, 육주현, 백지영, 박봄, 김재환, 황치열, 브레이브걸스 민영, 레드벨벳의 슬기, NCT의 도영, 드림캐처의 시연과 유현, 골든차일드의 Y 등 다양한 연령대의 총 34팀 62명이 함께 불렀다.

‘하나 되어’ 원곡자이자 여러 히트곡을 탄생시킨 프로듀서 최준영이 힘을 더했다.



‘2021 지금 다시 하나 되어’ 참여 가수들

음원 수익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연제협과 재능기부로 참여한 가수들 이름으로 전액 기부된다.

‘2021 지금 다시 하나 되어’ 제작 과정과 뮤직비디오 완성본은 오는 28일 SBS ‘희망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호주·유럽·남미 등 순차 방영

핑크퐁·아기상어 애니메이션 시리즈 ‘베이비샤크 빅 쇼’(Baby Shark’s Big Show!)가 전 세계로 방영을 확대한다.

스마트스터디는 글로벌 키즈 엔터테인먼트 채널 니켈로디언과 공동 제작한 애니메이션 시리즈 ‘베이비샤크 빅 쇼’를 호주, 유럽,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순차적으로 방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베이비샤크 빅 쇼’는 아기상어가 가족·친구들과 바다 세상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지난 3월 미국 니켈로디언 채널에서 최초 공개된 뒤 방영 첫날 2~5세 유아동 시청률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김민석 스마트스터디 대표는 “니켈로디언과 협업한 ‘베이비샤크 빅 쇼’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에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베이비샤크 빅 쇼’를 필두로 전 세계 어린이들은 물론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콘텐츠를 다양하게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지적재산(IP) 경쟁력을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